

『어린 왕자』와 교육 개혁

송태효 어린왕자 인문학당 대표

배를 만들고 싶다면,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지 말라.
대신 광활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 생텍쥐페리

교양 교육이 낳은 『어린 왕자』

1914년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생텍스의 어머니 마리 드 폰콜롱브(Marie de Fonscolombe)는 앙베리외앙뷔게(Ambérieu-en-Bugey)에 야전병원을 설립하고 수간호사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받아 생텍스와 동생 프랑수아는 리용 중학교에서 야전 병원 부근의 ‘노트르담 드 몽그레(Notre-Dame de Mongré)’ 예수회 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예수회의 전통적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자 어머니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스위스 프리부르(Fribourg)의 마리아 형제회가 운영하는 현대식 국제 학교 ‘빌라 생장(Villa Saint-Jean)’으로 다시 유학을 보냈다. 비로소 그곳에서 자유롭게 발자크와 보들레르, 도스토옙스키와 니체를 탐독한 생텍스는 당시 학창 시절의 독서와 토론, 다정한 교사들의 교양 교육이 자신의 모든 것을 키웠다고 솔회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다음 날 야전병원을 설립한 생텍스 어머니 마리 드 폰콜롱브. 사진 시공사.



예수회 소속 ‘노트르담 드 몽그레’ 중학교. 전통적 예수회 교육으로 유명한 생텍스의 모교. 사진 <http://www.mongre.org/>



현대식 창의적 교육 기관 ‘빌라 생장. 생텍스의 학창 시절 인문적 소양을 담은 자유로운 교육기관. 생텍스를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사진
<https://en.wikipedia.org/wiki/File:VSJ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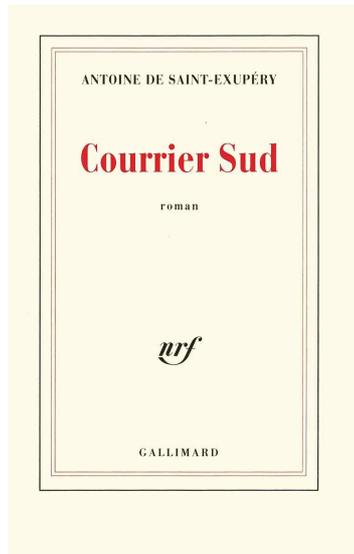


‘그의 모든 영혼으로’라고 새겨진 빌라 생장 국제학교 문장.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의미한다. 사진
<https://en.wikipedia.org/wiki/File:VSJ3.jpg>

생텍스가 학교 공부를 통해 크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제1철학에 관한 성찰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1641)에서 데카르트가 강조한 지침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이성의 지침을 따라 어린 시절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프랑스 예술가들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초기 영화를 인상파 회화 수준으로 끌어올린 현대성의 감독 아벨 강스(Abel Gance)¹⁾의 창작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시나리오 작가로서 제작과 촬영에도 일가견을 이룬 생텍스 역시 프랑스에서 최초로 니체의 철학을 번역 소개한 시인 철학자 강스의 작품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특히 아벨 강스는 “시는 힘의 철학이요, 철학은 이성의 시다.”²⁾라는 명구로 시와 철학의 상관관계를 조명하였는데, 이 시적 아포리즘에 조응하는 철학 동화 『어린 왕자』는 ‘빌라 생장’ 시절 생텍스가 자유롭게 연마한 교양 교육과 인문 소양의 결집물이었다.

1) 프랑스 인상파 영화감독, 「붉은 수염(Barberousse)」(1917), 「나폴레옹(Napoléon)」(1927, 1935 개정판), 「악성 베토벤(Un grand amour de Beethoven)」(1936), 빅토르 위고 원작의 「나는 고발한다」(J'accuse)(1938), 「여왕 마고(La Reine Margot)」(1954), 「발미(Valmy)」(TV, 1967) 등의 작품을 남겼다.

2) 송태효, 『어둠의 방-시와 영화 속 그림자 이야기』, 고대출판부, 2006, 189p 재인용.



졸업 후 고교를 찾은 생텍스에게 니체의 철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사죄하는 은사와의 회고담을 담은 『남방 우편기(Courrier sud)』(1925)

교양 교육 상실의 시대

우리에게도 저 불빛이 발하던 도서관에서 교양서적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던 고교 시절이 있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별 빛 아래 모여 천체 망원경으로 자기 별을 찾느라 여념이 없고, 감수성 있는 아이들은 뜻도 모르는 몰리에르 연극 주인공의 대사를 읊조리던 시절 말이다. 걸땀으로 프루스트의 소설들을 뒤적거리던 서고 창문으로 드문드문 새어 나오는 불빛이 우리의 꿈을 속삭이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 불빛을 등대 삼아 문인의 길, 교사의 길,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지금 그 창문은 어떠한 빛을 밝히고 있을지... 얼마나 많은 창문이 닫혀 있을지... 이제 시집을 읽으며 꿈을 키우고 모차르트를 듣고 빈센트를 바라보며 생각을 나누는 교실은 사라져 버렸는가. 개정 교육과정마다 창의 인성 교육을 내세우지만 진정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까? 오늘의 학교는 기관사조차 모르는 행선지를 향해 깔아 놓은 선로를 달리는 열차를 닮았다. 열차에 오른 승객들은 좌석의 등급과 번호를 확인하고 곧 시체처럼 잠에 빠져들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변해가는 풍경에는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생텍스는 『어린 왕자』의 전편 『사람들의 땅』에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토로한다.

이젠 당신 몸을 이루는 점토조차 말라붙고 급기야는 딱딱하게 응고해 버리고 말았지. 그러나 당신 안에 잠들어 버린 음악가나 시인 혹은 아마도 맨 처음 당신 속에 살고 있었던 천문학자를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 (Terre des Hommes)』, 송태효역, 고대출판부, 2009, 33p.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다음 기차가 앞서 간 기차를 따라 질주하자 선로 통제원에게

기차가 쫓아가는 것을 묻는다. 승객들은 아무것도 쫓지 않고 그저 잠이나 자고 하품이나 해달 뿐 창밖을 바라보는 것은 아이들뿐이란다. 부조리한 교과 과정에 갇힌 학생들은 교실 밖으로 펼쳐지는 세계를 보지 못한다. 수렴용 답안을 요구하는 입시는 학생들을 교양과 고전에 눈멀게 한다. 새로운 문장을 대하면 대부분 난독증 환자나 병어리가 되어 버린 만큼 지혜보다는 지식의 양이 대학 입시의 평가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1930년대에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프랑스 교실을 두고 생텍스는 이렇게 묻는다.

이제 교양은 교육에서 제외되었다. 교양이 공식을 암기하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양에 관하여 미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등 수학 과정 학생이라면 아무리 열등하다 할지라도 자연 법칙에 관하여 데카르트와 파스칼보다는 아는 것이 많다. 그 학생이 인간 정신에 관해서도 같은 수준에 이르렀을까?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Terre des Hommes)』, 송태효역, 고대출판부, 2009, 288p.

인간 정신과 무관한 암기 지식으로 과연 인간의 정신사를 다루는 인문 강의를 제대로 쫓아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교수의 강의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 쓰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낯선 생각과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 학생들은 이방인이 되어 간다. 낯섬과 새로움과 다름은 저주의 몫이 되었다. 생각하는 교육을 무용하게 여기는 만큼 교육 개혁 요구는 더욱 소원해진다. 자기주도학습을 표명하면서도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한 대입 진학 성적을 홍보하고 심지어 지자체나 학교가 주최하는 진학설명회에 유명 사교육 입시전문가가 초대된다. 입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학생과 학부모를 온갖 꼼수로 협박하는 사교육 앞에 교육부는 속수무책이다. 창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며 시작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교과서나 실용 가능한 사례집의 수준과 내용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다. 시와 철학에 관한 물음을 동시에 던지는 『어린 왕자』를 교재로 사용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막에 떨어진 어린 왕자가 처음 던진 독백에 귀 기울이며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전하는 창의적 교양 교육 시대의 문을 열어보자.

“참 희한한 별이야! 메마르고, 온통 뾰족하고, 험하고,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자기가 들은 말만 되풀이하잖아...우리 집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지.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 『어린 왕자』 제19장 부분



“참 희한한 별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 자기가 들은 말만 되풀이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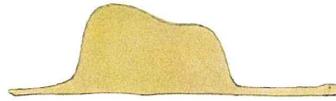
입시 교육에서 진로 교육으로

교양 교육을 상실한 진로 진학 지도는 대학 생활의 혼돈으로 이어진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발표한 2015년 학적변동 대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퇴생이 3만 8523명, 전과생은 1만 2179명, 휴학생 또한 46만 7570명에 이른다. 2014년도 강원대 입학생 5334명 가운데 33.7%에 해당하는 1786명(휴학 1622명, 자퇴 176명)이, 서울대학교 입학생 3473명 가운데 27.3%에 해당하는 974명(휴학 872명, 자퇴 72명)이 자퇴하거나 휴학하였다. 경제적 불황과 타 대학 동시 합격생들의 등록 포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통계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취업률 높은 모집 단위를 향한, 적성과 역량과 무관한 수능과 내신 위주의 지원 전략은 대학 생활에 어떠한 활력도 주지 못한다. 전공과 무관하게 경영대 과목이나 공무원 고시 준비에 매진하는 재학생들이 많고 중2병보다 무서운 대2병 환자도 많다. 졸업 자격증을 위한 취업 예비 공간으로 전략해가는 대학 당국을 졸업장 브로커로 풍자하며 대학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어간다.

효율적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도 유아원 시절부터 교육을 실시하는 프랑스처럼 우리 교육도 교육 진로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육 기관에서 글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행히 현장의 패러다임은 과거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통섭적 교육으로 전향해가고 있다. 진로교육이 활성화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도 각 학교에 배정되었다지만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보다는 입시에서 모집단위별 적성을 맞추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 적성에 맞는 직업 체험을 권장하고 진로 지도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의 인문적 소양과 흥미보다는 어른들의 가치 판단과 관점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사교육 기관의 통계를 따르면 약 75%의 지원자가 학부모 특히 모친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 『어린 왕자』에서 말하듯 아무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어른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니 정작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다. 진로 교육을 위해서는 미래의 브랜드를 고려하여 어른을 위한 진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어린 시절 꿈 이야기로 시작하는 『어린 왕자』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진정한 진로 교과서이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주인공 비행사는 자신의 첫 작품인 코끼리를 삼키는 보아뱀을 보여주지만 어른들은 한결 같이 이 그림을 모자라 우긴다. 아이의 설명에도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와 역사와 산수와 문법 공부나 하라고 훈계한다.



This is not a hat.



아이들의 관심은 본질 자체에 있지만 어른들은 보이는 것에 연연한다.

“이런 연유로 그만 나는 나이 여섯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해 버렸다. 내 그림 1호와 그림 2호의 실패로 그만 기가 꺾인 탓이다. 어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마다 설명을 해 주어야 하니 어린 아이들로서는 피곤한 일이다.” - 『어린 왕자』 제1장 부분

학교는 직업의 이해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직업만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조건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열 가지 이상의 직업을 섭렵한 생텍스는 인간을 맺어주는 소중한 직업의 본원적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비겁한 생계유지 수단으로써의 직업을 넘어 꿈과 자존감을 이루어가는 현실의 공간으로서 직업 말이다. 『어린 왕자』는 사람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직업의 위대한 가치를 일깨운다. 진로 교육의 기능은 훌륭한 취업 전략을 가르치기보다는 직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삶의 철학을 수립하는 데 있다. 『어린 왕자』는 진정한 직업으로서 일의 발견 역시 하나의 예술이라는 조금은 사치스러운 의식도 누리게 한다.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생텍스는 1936년 발발한 스페인 내전에 두 번이나 특파원으로 파견되었다. 어느 날 그는 전투가 치열한 마드리드 전서 참호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언덕 위 자그마한 돌담 뒤에 위치한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학교에는 이름 모를 어떤 하사가 주위의 포탄 세례를 무릅쓰면서 자신을 향해 기어오르는 순례자들을 맞이하여 식물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를 악물고 수업을 받던 순례자들이 깨달은 진실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전쟁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는 인간성 회복 공간이어야 하고, 그 어떤 역경에서도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로 가는 힘든 발길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JUNTA DELEGADA DE DEFENSA DE MADRID **Secretaría de Propaganda - Sección Fotográfica**

FILIACIÓN DEL FOTÓGRAFO 946

Apellidos Antoine de Saint Exupéry Nombre

Domicilio 15 rue Vauvan Paris (Florida Madrid) Teléfono

Edad 36 Nació en 29 Jun 1900 Lyon Rhone France

Provincia de Estado

Trabaja en Escritor (ARF) y aviador (Aéronaut)

Domicilio del destino

Partido político a que pertenece

Número del carnet Fecha del mismo

Otros antecedentes y observaciones que hace

1937년 4월 16일 생텍스에게 발부된 스페인 취재권. 당시 프랑스 정부는 스페인 인민 정부 요청에 따라 공화파에 무기를 지원하였다.

교사 입장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 제도의 변화를 주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러나 위의 전장의 하사처럼 현장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학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을 유도하고, 입시 위주 공부에 시야가 좁아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보여주며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은 가능하다. 적어도 천박한 이기주의와 학력 위주의 품위에 맞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숭고함을 일깨우는 스승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인간성이라는 케케묵은 고귀한 문제를 심어주지 못한 채 내신과 수능 대비 전략에만 몰두하다 학생들을 떠나보낸 교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날도 올 것이다. 사랑과 자유를 향한 생각을 열어주고, 일방적 입시 수업 형태를 벗어나 인간성 회복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리고 꿈을 키워주어야 한다. 소신대로 가르치지 못하여 제자들에게 죄스러운 다정함을 고백하는 스승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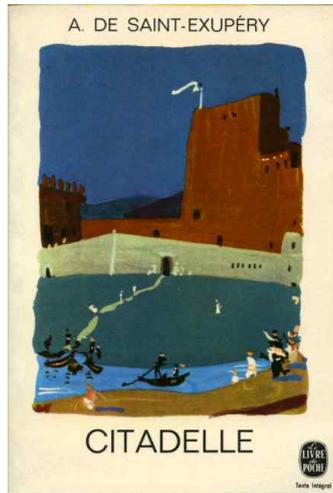
자신을 희생시킨 교사와 학생들의 숭고함

어린 왕자와 비행사의 대화는 대부분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자아에 갇힌 자신을 끄집어 내려는 시도로서의 내적 대화이다. 『어린 왕자』 제21장의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를 다시 읽어보자.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찾아볼 친구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아.” 라며 어린 왕자가 떠나려 하자 여우는 “길들이는 것들만 알 수 있다니까.”라고 답한다. 길들이는 것만 알 수 있다는 이 진실만 깨우쳐도 과도한 경쟁은 완화될 것이다. 오늘의 학교는 앎의 깊이보다는 지식의 양으로 나를 부풀린다. 앎을 위한 교육은 나를 발가벗게 하고 진실의 길들임에 이르게 한다. 나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나를 벗어나 공동체의 행복 추구를 보람으로 여기게 한다. 공동체의 행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린 모두 난파선에 승선한 신분이다. 차례만 다를 뿐 결국 모두 심연의 바닥에 이르고 말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중심주의 교육 체제에서 학생들은 당연히 성인들의 요구에 순응해야 자신의 성공을 보장받는다. 이해관계를 무시한 교육은 불가능하지만 천박하고 위선적 이해관계에 대항하여 선뜻 자신을 희생시키는 천성을 지닌 교사와 학생도 엄연히 존재한다. 대부분 자신만을 위해 사는 풍토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해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대중들에게는 우습게 보이겠지만 이들은 직관적으로 공동체 정신을 우선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위조지폐 같은 비정상 교육 제도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학술적으로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지

만 교육의 정신을 실현한다. 그리고 죽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생텍스 역시 이러한 역설적 현실을 고민하다 나름대로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제시한다.

선량한 이들을 구해낼 새로운 교육을 내 마음속에서 찾아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이성적 사유나 지혜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했다. 새기는 돌에 자유의지의 무게를 담은 조각가가 얼굴을 새기는 문제였기에. - 생텍쥐페리, 『성채』 XIII, 『Œuvres complètes』 II, 갈리마르, 1999, 412p.



생텍쥐페리, 『성채』
(1968), 리브르 드 포슈
(Le livre de poche)

예술적 교육, 마음의 교육

생텍스가 마음에서 찾은 새로운 교육은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예술적 교육이다. 예술적 교육은 입시 준비마저도 삶의 자양분으로 작용하게 하여, 입시에 끌려가지 않고 입시를 자기주도적으로 끌고 가게 한다. 세상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하며, 혐오의 대상인 여우와 뱀과 친구 맺으며, 사랑을 위해 과감히 자신을 버릴 줄 알게 한다. 관습적 사유와 이기심을 떠난 의식 전환의 교육이다. 또한 예술적 교육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예술가들보다 더 예술적으로 키운다.

생텍스가 마음에서 찾은 새로운 교육은 입시 교육으로 산산이 조각난 인간관계를 맺는 마음의 교육이다. 더덕더덕 치장한 지식은 벗어던지고 별거숭이 마음으로 서로 만나야 한다. 꺼져가는 내 속의 어린 왕자를 다시 살려야 한다. 꿈꾸던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자. 부조리한 입시제도로 인한 트라우마를 나누고 위로하는 눈물도 아끼지 말자. 우리 속의 어린 왕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의 아름다운 그림자를 보자. 어린 왕자의 호기심으로, 비행사의 긴장감으로, 구조대를 기다리는 조난자의 간절함으로 이 땅에 아직 피어 있는 희생적 불빛들과 소통해보자. 나는 나이면서 그대이고, 그대는 그대면서 나이기예.